



청송심씨 심벌마크

青松沈氏宗報

발행인 : 회장 심대평
편집인 : 편집장 심규선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 찬경회관 5층
전화 : (02) 2267-7857
(02) 2267-9339
F A X : (02) 2269-7755
인쇄 : SNS인쇄
02-2277-0245

격월간 제146호(1955년 7월 5일 창간)

홈페이지 | www.csshim.or.kr

2020년 11월 30일(월)

중장년 모임 '청수회' 발족 ... 과거와 미래 잇는 가교로

10월 17일 경남 산청서 총회 열고 '청수회 10훈' 등 채택
회장에 심학섭 ... 2024년까지 회원 2000명, 기금 3억 목표



<청수회 10훈>

1. 우리는 청송 심문의 자손이다.
2. 우리는 조상의 은덕과 부모님의 은혜를 받았다.
3. 우리는 심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다.
4. 우리는 마음속 깊이 심문의 뿌리를 지키며 살 것이다.
5. 우리는 심문의 후예로서 가족, 친척, 우리나라에 보탬이 될 것이다.
6. 우리는 함께 단합하고 뭉칠 것이다.
7. 우리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인내하고 덕을 베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8. 우리는 대종회를 기반으로 하여, 전국 심문의 젊은 모임으로서 미래지향적 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일 것이다.
9. 우리는 효와덕 그리고 정의로움을 실행하는 모임이 될 것이다.
10. 우리는 시대적 모임이었음을 미래 후손들이 알게 할 것이다.

<청수회 조직>

구분	직책	이름
회장단 및 사무처	회장	심학섭
	고문단장	심상돈
	자문단장	심영철
	감사	심상형
	수석부회장	심현섭
	해외협력본부장	심재운
	대외협력본부장	심재중
	사무총장	심재희
	사무부총장	심상호
	사무국장	심은영
지역위원장 (인천,대전, 강원, 해외 등은 물색중)	서울	심재철
	부산	심승무
	대구경북	심봉섭
	광주전남	심성식
	울산	심명보
	경기	심진섭
	충북	심주훈
	경남	심홍보
	전북	심관섭
	제주	심국향
	청송	심남규



심학섭 청수회장

어느 조직이나 젊은이들이 모이지 않아서 걱정이다. 젊은이들이 모이지 않는 조직에 미래와 활기가 있을 리 없다. 특히 여러 문중의 대종회가 그렇다. 청송심씨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 걱정 속에 청송심씨의 40, 50대 중장년의 모임인 '청수회(靑秀會)'가 발족했다. 이 모임은 20여 년간 대종회의 허리 역할을 해온 청심회(靑沈會)의 뒤를 이어 심문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청수회는 10월 17, 18일 경남 산청에서 총회 및 단합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총회에는 회원 100여 명과 심대평 대종회장, 심동섭 대종회 부회장, 이재근 산청군수, 심재화 산청군의회의장 등 외빈 20여 명도 참석했다. 총회는 심학섭 진행위터웨이 대표(54)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각 조직과 지방 책임자도 인준했다.

심학섭 청수회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40, 50대가 주축이 된 청수회는 앞으로 10대부터 30대까지도 끌어안아 청송심문의 송조돈목과 뿌리정신을 미래로 넘겨주는 견인차로 만들겠다"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해외조직 구성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수회는 이런 취지에 따라 단체의 3대 목적으로 심문의 뜻을 잇고 전달하는 중장년층 모임을 지향하고, 젊은 세대와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며, 전국 및 해외 네트워크를 만들어 구성원의 시야와 긍지를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심대평 대종회장은 축사를 통해 "청수회는 전국 각지에서 연령대별로 모인 대종회 최초의 '일가모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심문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발전하길 바라며 대종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격려했다.

청수회의 탄생에는 지난해 10월 5일에 열린 '청송심씨 한마음대회'가 기폭제가 됐다. 대회 이후 각지에서 뒤풀이 성격의 단합대회가 열렸고, 이를 공식조직으로 승화 발전시키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청수회 결성으로 이어졌다.

청수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사무국장을 두고, 산하 14개 지역별로 지역회장이 있다. 고문단, 자문단, 대외본부장제도 운영한다.

청수회 발족을 보고

沈영감 심민섭



청장년층의 자발적 단결은

심문의 르네상스 예고



심동섭 대총회 부회장 악은공중회 회장

청수회는 청송 심씨 청장년들이 종사를 위하고, 선조들의 위대한 업적을 되새기고 공부하며 헌신 봉사하려는 모임이다. 이들의 활동은 이미 청송심씨 종보나 밴드에 자주 나왔기 때문에 많은 일가들이 알고 있으리라 본다. 지난

10월 17, 18일 한방약초의 고장 경남 산청의 동의보감촌에서 개최한 이들의 총회에서 신선한 감동을 만났다.

이날의 행사에는 대총회에서 대평 회장님과 상역 문화이사님이 천 리 먼 길 달려오셔서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하였고, 산청군에서는 이재근 군수와 심재화 군의회 의장이 참석해서 축사를 하였다. 이들은 "요즘은 어느 씨족 없이 종사를 보는 사람은 70~80 고령층인데, 청송심씨 문중의 젊은 분들이 전국에서 모이는 청수회를 보니, 큰 희망과 무한한 가능성을 읽을 수 있었다"고 극찬하였다.

〈심문의 역사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특강과 한글세계화운동본부 심의두 총재님의 한

글사랑 강의에 이어 정기총회에서는 진지한 토의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고, 만찬 후 화합과 친목의 장도 열렸다.

다음날에는 산청현감으로 계셨던 2세조 합문 지후공(諱 淵) 선조님의 유적을 찾아 유허비를 참배하고, 단성의 만취재(세덕사)와 합천 삼가의 두산정도 둘러보면서 할아버지에 대한 역사공부를 알차게 하였다.

집행부의 사전답사와 치밀한 계획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과 '청수회 10훈'을 제정해 청송심씨라는 자긍심을 살려 종사에 헌신 봉사하겠다는 다짐을 지켜보며 실로 큰 감동을 받았다.

기본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며,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시간이 남는 것도 아니다.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 조상님을 기리고 종사를 위해 발 벗고 뛰는 청수회를 보며 이제 우리 청송심씨는 과거 화려했던 삼한갑족으로 돌아가는 르네상스를 맞을 것 같았다.

필자가 청수회를 극찬하는 이유는 각계각층의 엘리트들이 모여 아무런 사심 없이 선조님을 섬기고 대총회를 중심으로 종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헌신봉사하겠다는 올곧은 정신과 신선한 열의, 사기충천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학섭 회장을 비롯한 청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잘 물든 단풍은 화사한 봄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청송 보광사 주지 沈무구 스님

며칠 전 인근에 있는 한 사찰을 다녀왔다. 생활이 어려운 환자를 후원하고 저개발국가에 학교를 짓는 등 교육과 나눔에 힘쓰시는 스님을 뵈기 위해서다.

절에 도착하니 마침 스님들이 도량의 나무들 사이에서 낙엽을 쓸어내 밭으로 모으고 계셨다. 밭 구석에 단정하고 단단하게 비닐로 덮은 무더기가 있기에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우리 절의 보물이자 생명의 원천"이라며 웃으신다.

봄에 거름으로 쓰기 위해 가을에 떨어진 낙엽과 과일, 시든 화초, 음식찌꺼기 등을 썩히고 있는 중인데, 이 거름으로 농사도 지어 먹고, 꽃들도 다시 피우니

보물이자 생명의 원천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것이다.

시인 도종환은 '다시 피는 꽃'이라는 시에서 '제 몸 가장 빛나는 꽃을/ 저를 키워준 들판에 거름으로 돌려보낼 줄 알아/ 꽃은 봄이면 다시 살아난다// 가장 소중한 걸 미련 없이 버릴 줄 알아/ 나무는 다시 푸른 잎을 낸다'라고 읊어, 번치 않고 영원한 것은 없으며 버림으로써 다시 돌려받는 진리를 표현했다.

대부분의 사람이 꽃은 좋아하고 거름은 싫어하지만 꽃이 거름이고 거름이 곧 꽃이다. 부모나 스승은 어찌 보면 인격의 꽃을 피우는 데 꼭 필요한 양분을 제공하는 거름이라 할 수 있다.

상담전문가는 상담하러 온 사람의 문제점을 파악할 때 어릴 적 자라온 환경을 중시한다고 한다. 넉넉하지는 않았어도 화목한 가정이었는지, 넉넉하지만 부모의 얼굴조차 보기 어려운 가정이었는지와 편부, 편모, 조손 가정 여부 등이 인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거름일까? 건강하고 향기로우며 모양이 예쁜 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잘 숙성된 유기농 거름일까? 거름이긴 하지만 흑 쓰레기가 섞여 있는 거름은 아닐까? 아니면 숙성이 덜 돼서 냄새가 고약한 거름은 아닐까? 불교의 초기 경전 『앙굿따라 니카야』 「깨끗한

경」(Soceyya-sutra)에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법한 '세 가지 깨끗함'에 대한 가르침이 들어있다.

"수행자들이여, 세 가지 깨끗함이 있다. 무엇이 셋인가? 몸이 깨끗함, 말이 깨끗함, 마음이 깨끗함이다.

그러면 무엇이 몸이 깨끗함인가? 여기 어떤 사람은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의고, 순결하지 못한 삶을 멀리 여의다. 이를 일러 몸이 깨끗함이라 한다.

그러면 무엇이 말이 깨끗함인가? 여기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멀리 여의고, 이간질을 멀리 여의고, 욕설을 멀리 여의고, 잡담을 멀리 여의다. 이를 일러 말이 깨끗함이라 한다.

그러면 무엇이 마음이 깨끗함인가? 여기 어떤 사람은 간담하지 않고, 악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바른 견해를 가졌다. 이를 일러 마음이 깨끗함이라 한다.

이것이 세 가지 깨끗함이다."

이 가을에 아름다운 단풍을 보며 한 번쯤 사유하게 된다. 내 인생도 이제 단풍이 들기 시작한 것 같은데 어떤 단풍이 되어야 할까? 부모나 스승이 깨끗한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자녀나 제자를 가르친다면 이 세상은 아름답고 예쁜 꽃들로 넘실거리는 화장세계(華裝世界)가 될 것이다.

잘 물든 단풍은 화사한 봄꽃보다 아름답다.

자랑스러운 일가를 찾아서(2) / 심 민 전북 임실군수

“심은 할아버지 본받아 정직한 목민관이 되고 싶다”

전북 임실군은 민선 5기까지 20년간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임기를 마친 군수가 없다. 그만큼 혼란스러운 곳이었다. 그런 임실군이 요즘 우수지자체로, 대한민국 최고의 치즈 메카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변화의 중심에 심민 군수가 있다. 민선 6기에 이어 현재 민선 7기까지 6년째 임실군정을 이끌고 있다. 그것도 무소속으로. 그는 치밀한 계획과 현장 중시, 남다른 열정으로 자신의 고향인 임실을 바꿔가고 있다. 수적천석(水滴穿石), 작은 물방울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결국 바위를 뚫는다. 심민 일가에게 어울리는 말이다. 일흔 살을 넘기고도 정력적으로 일하고 있는 그를 만나봤다.

임실군은 어떤 곳?

대한민국 치즈의 발상지다. 1964년 벨기에 출신 고(故) 지정환 신부가 처음으로 만든 것이 오늘날의 임실N치즈의 시초다. 임실N치즈는 7년 연속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을 받았고, 임실N치즈축제는 전국에서 매년 40여만 명이 찾아오면서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축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천혜의 자연경관 옥정호, 오수의견(獒樹義犬)을 기리는 오수의견관광지, 고려와 조선의 개국설화를 지닌 성수산 등 관광자원도 풍부하다. 12개 읍면에 인구는 2만 8천여 명이며, 군청은 3국 1담당관 16과와 2개 직속기관을 두고 있다.

- 군수가 되겠다는 꿈은 언제 꾸게 되었고, 고향에서 군수를 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18년 전인 2002년에 전라북도에서 임실군 부군수로 근무했다. 당시 모시던 분이 불행히도 중도에 낙마하는 바람에 군수권한대행을 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임실군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무척 뒤떨어지고, 주민들도 피폐한 상태였다. 그동안 같고 닮은 행정경험으로 고향 주민들을 보듬고, 임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은 마음에 2004년 6월 군수선거에 출마했다.”

당시 심민 일가는 열린우리당 1차, 2차 경선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과반을 넘겨야 하는 경선룰에 따라 3차 경선을 치르면서 2위로 밀리며 고배를 마셨다. 그 후 임실의 구석구석을 발로 누볐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던가. 2014년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군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뜻을 세운 지 10년 만이다.

- 왜 무소속을 택했나.

“첫 출마를 결심했던 2004년 경선탈락의 충격이 컸다. 그때부터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 농촌 지역이라서 어르신들이 많은데, 10년간 곳곳을 돌아다니면 묵묵히 내 뜻을 피력하자 어르신들 사이에서 행정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군수가 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 공무원으로 일할 때 몰랐던 것을 군수로 일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다면.

“그냥 공무원으로 일할 때는 수동적으로 일할 때도 많았지만, 군수라는 자리는 책임감과 도전, 남다른 열정이 필요하다. 그 대신 성취감도 높다. 현안사업들이 잘 풀릴 때 큰 보람을 느낀다.”

- 어떤 분야나 사업에 공을 들였는지.

“2014년 7월 1일 민선 6기 군수로 취임할 당시 군 전체예산은 2880억 원으로 너무 적었다. 군수 취임 6년만인 올해 5천억 예산을 달성해 ‘재임 중 5천억 예산 확보’라는 약속을 지켰다. 초라했던 임실읍을 도심의 면모를 갖춘 시가지로 변화시킨 것에도 자부심을 느낀다. 임실N치즈



심민 임실군수가 걸어온 길

1947년 전북 임실군 임실읍에서 가난한 농부의 8남매 중 외아들로 태어났다. 전주 생명과학고(옛 전주농고)와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가정형편 때문에 고교 졸업과 동시에 임실군 면서기로 공직에 입문해 군 계장과 전북도청 과장을 거쳐 임실군 부군수를 지냈다. 10년 동안이나 야인으로 생활하다 무소속으로 민선 6기의 군수가 됐다. 2018년 6월 민선 7기 군수 선거에서는 3명의 후보 중 53.47%로 압도적 지지를 얻으며 무소속 재선 고지를 밟았다.

축제의 기획과 성공도 빼놓을 수 없다. 2015년 10월 제1회 임실N치즈축제를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개최했다. 10만여 개의 국화화분을 전시했고, 읍면별 생활개선회가 만든 특색있는 먹거리, 한우협회의 생후 50개월 미만의 암소고기 판매 등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후 매년 40만 명

이상이 찾는 국민 축제로 성장했다. 올해로 6회째인데 아쉽게도 코로나로 열지 못하고, 대신 봄부터 농가에서 정성 들여 키운 국화 화분 3만 개를 치즈테마파크에 전시해 많은 사람이 즐기도록 했다. 전라북도의 보물인 옥정호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풀리면서 생태관광개발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 옥정호에 출렁다리가 걸리고, 생태탐방선 운행과 수상레포츠 등도 가능해지면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기대한다”

옥정호는 1965년 대한민국 최초의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을 건설할 때 생긴 담수호다. 1999년 8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 16년만인 2015년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풀렸다. 심민 군수의 끈질긴 노력도 한몫 했다.

- 어떤 군수로 기억되고 싶나.

“민선 5기까지 모든 군수가 중도 낙마하자, 군민들이 ‘임기를 채우는 군수가 되어달라’고 할 정도였다. 내가 민선 6기의 임기를 채운 것이 뉴스가 될 정도였다. 민선 7기도 성공적으로 이끌어 ‘군정도 성공하고, 임기도 채운 군수’로 남고 싶다”

- 청송 심씨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다면.

“청송 심씨는 살아오는 내내 자부심이었다. 세종의 장인이자 소헌왕후의 아버지로 영의정까지 지낸 심온(沈溫)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올바르게 정직한 목민관이 되고 싶다. 임실군에는 청송 심씨가 15세대 밖에 없어 혈연적 지반은 좀 약한 편이다. 하지만 심덕섭, 심보균 차관 일가가 어려울 때마다 상담해 주고, 중앙부처 예산 확보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앞으로는 뜻있는 일가 모임에 자주 참석할 생각이다.”

심 군수는 “‘보’자 향렬로 이름을 지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해 아쉬웠지만 군수가 되는 데는 ‘심민’이 ‘일등공신’이 됐다”며 웃었다. ‘민심은 심민’, ‘심민은 민심’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 또한 핏줄의 복이 아니겠는가. (인터뷰=김은숙 임실군청 홍보팀장, 질문서작성 및 정리=심규선 홍보 편집장)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우리 청송심가 이야기(16)

임진왜란 이어 정유재란 다시 출정해 장렬히 순국

11세조 벽절공(碧節公·휘 沈淸) 할아버지 (3)



沈厚燮

아동문학가·교육학박사

11세조 벽절공(碧節公) 청(淸) 할아버지는 임진왜란(壬辰倭亂)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유재란(丁酉再亂)이 일어나자 이번에도 맡아들인 응락(應洛)을 데리고 멀리 울산까지 달려가셨어. 둘째 아들인 응렴(應瀦)은 나이 드신 할머니(청 할아버지의 어머니)를 보살피

도록 하고.

청 할아버지는 임진왜란에 의병으로 참여한 공을 인정받아 통훈대부훈련봉사(通訓大夫訓鍊奉事)라는 벼슬을 하고 계셨지. 그러니 다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부끄러울 일이 없었으나, 나라가 다시 위기에 빠지자 기어이 전쟁터로 달려가셨어.

청 할아버지가 달려가신 울산 태화강가에는 왜놈들이 높이 성(城)을 쌓고 장차 우리나라를 영구히 점령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그래서 많은 선비가 분개하여 이곳으로 모여들었던 거야.

전국에서 모여든 2만여 명의 선비 의병들이 왜성을 에워싸자 왜군들은 보급로가 끊기면서 고전을 하게 되었어. 물이 없어 오줌을 받아 마시고, 식량이 모자라자 전투용 말(馬)을 잡아먹는 등 어려움에 빠졌지. 그러다 보니 왜군들은 발악하다시피 반격하였어.

부산에 있던 왜군들이 이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거쳐 울산 왜성으로 올라왔어.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지. 이때 청 할아버지는 다른 의병들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하시고 말았어. 청 할아버지는 몸을 사리지 않으시고 전투에 앞장섰던 거지. 돌아가실 때 불과 마흔넷이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지.

다음은 안동 사람 권주옥 선생이 쓴 청 할아버지의 묘비에 나와 있는 당시 모습이야.

정유년(丁酉年) 12월 21일, 도산(島山)¹⁾ 전투에서 적들의 칼을 무릅쓰고 힘써 싸우다가 마침내 돌아오지 못하고 순절(殉節)하였다.

아아, 하늘이 어떠한 연고로 충신을 초야(草野)에서 죽게 하였는가? 맏아들 응락(應洛)이 말가죽으로 시체를 거두어 구송정(九松亭)²⁾ 뒷산에 모셨으니 공의 나이 44세였다.

하늘이 만약 몇 년의 수(壽)를 더 주었다라면 나라에서 원수를 소탕(掃蕩)하는데 어찌

세월이 더 많이 걸렸으리요? (중간 줄임)

아아, 공은 시례지문(詩禮之門)³⁾의 자제로서 무사(武士)가 그의 일이 아니며 방어(防禦)가 그의 책임이 아니나, 특별히 의리의 성품으로써 인간의 뒤통을 지키는데 나아가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옳지 못한 일에 양심(良心)을 좇아 분개하였다.

반드시 이기고 지는 것과 날카롭고 둔한 것을 마음에 기대하지 않고, 호미로 무기를 삼고 장대에 기(旗)를 걸어 주사산의 싸움에 이겼고, 공암(孔岩)에서 적을 베어 드디어 백성이 살 곳을 보장하는데 앞장 서서, 당일 조수(鳥獸)들이 저들의 고기를 먹는 것을 보았으니 어찌 당당하지 아니하리오? 이는 마땅히 명(銘)할 만하니⁴⁾ 명은 다음과 같다.

공이 죽어서 혼(魂)이나마 옛 산에 돌아왔으니 그 혼은 결코 죽지 아니하였도다.

몸은 비록 죽었다 하나

그 이름은 후세에 영원히 살아있도다.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아니한 사람을 보니 이름이 따라서 없어진 자로다.

공의 이름은 천고에 푸르고 빛날 것이니 영원히 살아있도다.

- 기해년 4월 상순에 안동인 권주옥 삼가 지음

이 비문을 읽어보면 청 할아버지가 어떻게 마지막을 보내셨는지 알 수 있어. 청 할아버지는 글을 읽는 선비 집안에서 자랐지만 나라의 어려움을 만나 기어이 목숨을 바치셨던 거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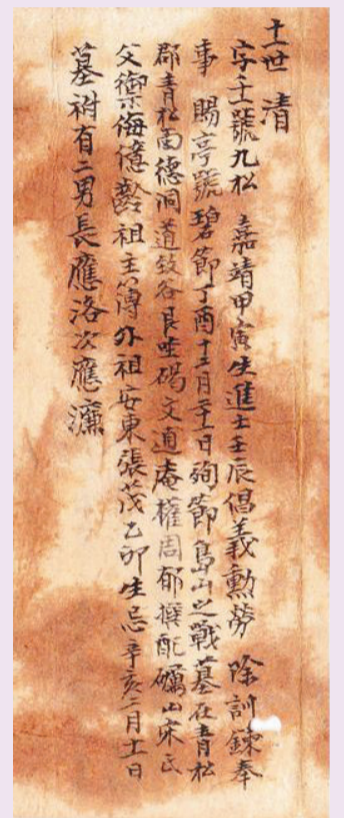
에 나라로부터 ‘푸른 벽(碧), 절개 절(節)’을 써서 ‘벽절(碧節)’이라는 정호(亭號)를 받으셨어. 그리하여 오늘날 청 할아버지를 ‘벽절공’이라고 부르게 된 거야.

벽절공 할아버지의 산소(山所)는 벽절정에서 건너다보이는 관리(館里) 뒷산 오른쪽 길가에 있다. 옛날에는 이곳을 도치곡(道致谷)이라 불렀는데 청송읍(靑松邑)에서 진보(眞寶)로 나가는 도로 오른쪽 기슭에 있어서 길에서도 쉽게 볼 수 있어.

그 뒤 울산 충의사(忠義祠)가 벽절공 할아버지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길이 역사에 남을 일을 하신 거지.

(다음 호에 계속)

가첩에 나타난 제11세조 청(淸) 할아버지의 기록



벽절공 묘소와 묘비(경북 청송군 청송읍 덕리)

1) 오늘날의 울산 지역. 왜구는 이곳을 통해 내륙으로 들어왔다.

2) 여기에서 말하는 구송정(九松亭)은 오늘날의 벽절정이 아니라 청 할아버지가 살았던 청송군 청송읍 덕리 마을에 있던 정자를 말한다. 지금의 청 할아버지 무덤 왼편에 있었다. 지금도 돌레에 소나무가 있던 흔적이 남아있다.

3) 글을 읽는 선비의 집안

4) 시(詩)로 새겨둔 만 한 일이니

청송심문 13정승 열전(10) 청천부원군 영의정 안효공 심온(沈溫, 1375~1418)

세종대왕의 장인, 태종의 왕권강화책에 희생되다

명나라에 사은사로 갔다가 돌아오던 중 체포당해 사약...33년 후에 신원



심재석
문학박사



안효공 묘역(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1. 12세 과거 합격 천재 소년 심온, 외가에서 자란 소헌왕후



『登科錄(前編)』(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실린 심온 할아버지 이름. 등과록은 고려시대 과거급제자 명단이다.

안효공 심온 할아버지는 청성백(휘 심덕부)의 5남으로 태어나 고려 우왕 때인 11살에 초시에 합격하고, 12세에 대과인 감시(監試)에 합격한 천재였다. 이후 영예롭고 순탄하게 관료 생활을 이어갔다. 고려와 조선전기에는 남자가 혼인하면 처가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는 전통이 있었다. 안효공 역시 처가인 소의공 안천보(昭懿公 安天保) 댁에서 거주한 것으로 짐작된다. 처가는 양주 회암사 근처였는데, 외가에서 성장한 소헌왕후는 외할아버지와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다정했다고 한다.

2. 안효공의 주요 연보

서기	나이	연보
1375(우왕 1)	1	출생(청성백 48세)
1385~1386(우왕 11~12)	11~12	초시(11세) / 문과 합격(12세)
조선 개국초	18~30	병조·공조 의랑(議郎), 상호군, 판통례문사
1401(태종 1)	27	(청성백 서거·74세, 소헌왕후 7세)
1407(태종 7)	33	승정원 동부대언(同副代言)
1408(태종 8)	34	공의 장녀(14세)와 충녕군(12세, 세종대왕)과 혼인
1411~1413(태종 11~13)	37~39	풍해도(황해도) 관찰사, 대사헌
1414~1417(태종 14~17)	40~43	형조, 호조판서, 좌군도총제, 판한성부사, 이조판서, 공조판서
1418(태종 18)	44	찬성(중1품), 청천부원군(靑川府院君), 영의정(正1품), 사은사로 중국에 갔다가 돌아오던 중 의주에서 체포당해 수원서서거(음력 12월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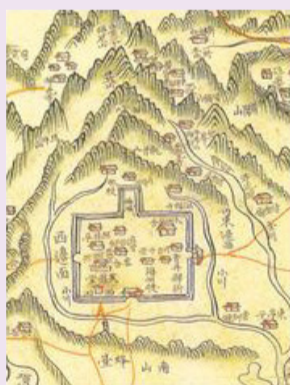
3. 안효공은 이런 분이다

① 안효공은 심문 중 고려 왕조의 문과에 합격한 유일한 인물이다. 그것도 12세에 합격했으니 청성백의 위상을 한껏 높여주었다.

② 청송심문 13정승 중 안효공의 직계 후손이 10명이다. 그리고 후손 중 왕후와 부마가 각각 세 분이다.

③ 안효공은 형조, 호조, 이조, 공조판서 등 중앙의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청성백의 뒤를 이어 한양 도성을 수리하는 제조(提調)로서도 업적을 남겼다. 그 후 대사헌과 형조를 맡아 관리의 기강을 세웠으며, 호조판서로서 국가의 살림을 맡아 동전(銅錢)과 저화(楮貨·종이돈)의 사용을 장려했다. 좌군도총제, 이조판서, 공조판서, 한성부 판사를 지내며 국가의 중요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했다. 외직으로는 풍해도(황해도) 관찰사가 돋보인다. 이때 읍성이 없던 해주에 처음으로 성을 쌓았으며, 백성들을 위한 세금 감면에도 노력했다.

이상의 행적만 봐도 안효공의 능력이 출중했음을 알 수 있지만, 기록이 매우 부족하여 공의 업적을 상술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공이 돌아가신 지 300여 년 만에 신도비를 지은 추우당 심단(追尤堂 沈澹)은 “조정에서 공이 이룬 덕업과 부인의 행적이 실전하여 기록하지 못하니 통탄할 노릇이다”(신도비)라고 안타까워했다. 공이 영의정이 된 것은 국구(國舅·왕의 장인)에 대한 예우이기도 했지만, 12세에 문과에 합격하고 내외직을 두루 거치며 실력을 인정받은 결과이기도 하다.



해주읍성(해동지도) : 안효공이 32세 때 풍해도 관찰사로서 쌓은 읍성이다(둘레 10,197척, 높이 16척).

④ 공의 장녀인 소헌왕후는 세종대왕의 정비(正妃)가 되어 8남 2녀를 낳았고, 내명부부를 관장하며 궁궐의 평안을 지휘했다. 그래서 ‘조선 왕실의 만세 기업을 닦은’ 성모(聖母)로 추앙받고 있다. 왕후가 서거하자 서거정은 “신하들이 하늘을 우러러 눈물을 줄줄 흘렸다”(『사가집』 중 ‘소헌왕후만장’)고 애도했다. 장인이 죽는데도 손조차 쓸 수 없었던 세종은 왕후가 서거하

자 “세존(世尊)의 말씀을 여쭙려고 하니 천 년 전의 말씀이시나 귀에 듣는 듯이 여기소서(『월인천강지곡』 其2)”라며 찬불가를 지어 왕후를 추모했다.

⑤ 공의 사위 강석덕의 아들이 강희맹(『금양잡록』 저자)과 강희안(『고사관수도』의 작자)이다. 다른 사위 노물재의 아들이 영의정 노사신이다. 따라서 강희맹과 영의정 노사신은 이종 4촌 간으로, 안효공의 외손들이다.

4. 무술옥사(1418), 태종이 저지른 마지막 참극(慘劇)

안효공은 ‘무술옥사(戊戌獄事)’로 숨졌다. 명나라 사신으로 갔다 오다 의주에서 체포당해 수원에서 사약을 받았다. 태종은 안효공의 무릎을 짓이기는 ‘압슬형’을 통해 ‘병권을 잡아보려 했다’는 억지 자백을 받아 공을 자진(自盡)케 하였던 것이다. 공의 나이 44세로 영의정이었을 때다.

태종의 왕권 보호에 대한 집착은 거의 병적 수준이었다. 그는 정몽주, 세자 방석, 처남 네명을 죽이고 이숙번을 유배했다. 왕실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만한 요소는 자신의 손으로 모두 정리하고 세상을 뜨겠다고 작심한 그였다. 따라서 무술옥사에서 박은(朴崑), 유정현 등은 조연에 불과했다. 박은 후손의 책에 기록된 ‘박 씨와 혼인하지 말라’고 했다(『기재잡기』와 신도비)는 안효공의 유언은, 사실 여부를 떠나 되새길 필요가 없다. 이 무술옥사의 ‘총감독은 태종’이었고, 그가 저지른 마지막 의도적 참화(慘禍)였기 때문이다.

5. 안효공의 신원(伸冤)과 ‘잘못된 일이었다’는 고백

안효공은 “성품이 인자하고 온순하여 물정(物情)에 거슬리지 않았다”고 한다(『심온졸기』). 외손자인 문종은 공의 사후 33년 만에 공을 신원하고 복권시켰다. ‘안효(安孝)’라는 시



안효공 신도비 두전(頭篆). 이 두전을 쓴 심육은 강화학파의 거두이며 영의정 심수현의 아들이다(탁본 심재서, 2020.10.16). 호도 내리고, 외삼촌들도 등용했다. 그 중 공숙공은 훗날 영의정에 오른다.

안효공의 죽음을 두고 태종 본인과 세종은 물론, 훗날 많은 인사가 ‘잘못된 일이었다’고 지적했으며(안승선, 황희, 맹사성, 노한, 황보인, 김종서, 허후, 남지), 심단은 “몸을 구부리고 발끝으로 걷더라도 억울함은 백세토록 남으리라”(신도비)고 애통해 했다.

지파종회 회장들의 송년사

30만 심문의 송조돈목, 코로나 속에서도 빛났습니다



올 한해는 코로나로 시작해 코로나로 저물고 있습니다. 그런 역경 속에서도 청송심문은 내실을 기하며 착실히 성장해 왔습니다. 이는 전국 곳곳에서 심문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지파종회와 종회장들의 공이 큼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며 지파종회장들의 송년사를

들어봤습니다. 지파종회장들은 이구동성으로 코로나 국면이 빨리 진정되기를 고대했습니다. 조상을 위한 각종 종사와 일가분들과의 만남을 위해서입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지파종회장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중국애족에 투철했던 조상의 뜻 이어받아야”



심상우 판사공종회장

30만 청송 심문의 성원과 축복을 받으며 시조 문립 랑공(諱 洪孚)의 청송 보광산 묘소에서 5000여명의 후손들이 추향제를 봉행하니 ‘청송심씨 한마음대회’였다. 이 대회는 심문이 800여년간 ‘충효(忠孝)’의 가통을 이어온 명문거족임을 온 세상에 알려 후손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였다.

판사공 문중은 좌랑공(諱 溝)이 전남 보성으로 낙남(落南)한 이래 500여 년간 호남을 사랑하고 지켜왔으니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국가도 없었을 것이다(若無湖南 是無國家)”라고 한 말에는 조상의 공덕도 들어있을 것이다.

청송심문은 2세조 지후공(諱 淵)의 문장과 덕업, 4세조 정안공(諱 德符)의 왜구토벌과 조선 개국의 위업으로 3왕후 13상 2문형을 배출한 삼한갑족이 되었다. 후손들이 존조숭족(尊祖崇族)과 중국애족의 길로 매진할 때 남북통일의 성업도 이뤄지리라 믿는다.

“후진 참여 유도가 종회 발전의 최우선 작업”



심재덕 부산종회장

존경하는 전국의 청송심씨 일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송심씨 부산종회 일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 庚子年은 전 세계적으로 휘몰아친 코로나 19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던 한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부산종회는 1945년 ‘심문화’라는 작은 모임으로 발족한 이래 75년간 출향인들의 뜻을 모아 그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부산종회는 역대 회장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회원님들의 협조로 반석 위에 올라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종회를 찾는 종인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사실이 안타까우면서도 어떻게 하든 후진을 양성하는 것이 종회 발전의 최우선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종회 회원여러분! 경자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쉬웠던 올해 일은 잊으시고, 새해에는 더욱 매진하시어 사업번창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30만 국내외 일가, 명문가 만드는 데 동참하길”



심상조 석촌공종회장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지난해 10월 분향 청송에서 처음으로 개최했던 청송심씨 한마음대회의 그 뜨거웠던 열기와 감동을 기억합니다.

800여 년간 조상 대대로 우리 분향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심문의 후예로서 올 한해도 시조 묘소 수호관리와 제향 봉행, 선조들이 남겨 놓으신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보존·계승 발전시키면서 종사(宗事)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대종회가 심문(沈門) 달력 제작, 새롭고 알찬 종보(宗報) 편집, 전국 청·장년회 조직 확대 등으로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변화를 보여 주고 있는 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심문이 명문거족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국내외 30만 일가들이 뜻을 모아 명가문(名家門)을 빛내는 데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마음으로 난관 극복을”



심재열 창원사복시정공종회장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국내외 30만 청송심문 일가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길 축원합니다.

그동안 사복시정공 창원종회에 베풀어주신 사랑과 격려로 2020년 종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종원과 일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대혼란 속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일가님들 또한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돈목 화합’의 정신으로 지난해에 치른 역사적인 <청송심씨 한마음대회>를 회고하며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마음가짐으로 이 난관을 잘 헤쳐 나가길 소망합니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는 30만 청송심문 일가님들의 소망하신 모든 소원 이루시고 희망으로 가득 찬 한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새해 복(福) 많이 받으십시오.

“2021년에는 코로나 역병이 사라지게 하소서.”



심재갑 곡산공종회장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년과 다른 한해가 되었다.

첫째, 조상님께 참으로 죄송스럽다. 봉제사일에도 마음대로 참석하지 못하고, 성묘도 제대로 못했으며, 종종행사도 많이 생략했다.

둘째, 우리 모두 은둔생활을 강요당했다. 정다운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고, 취미생활도 제대로 못했다. 또 국내외 여행조차 할 수 없었다.

셋째, 인생에서 소중한 일 년을 손해 보며 살았다. 온전하지 못한 삶은 우리에게 일상의 소중한 일깨워 줬다.

그러므로 신축(辛丑)년 1월 1일 자시(子時)를 기하여 靑松 沈氏 25世孫 載甲은 천지신명(天地神明)께 간절히 비읍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을 퇴치하여 주시어 세계 인류가 평상의 생활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못했던 종사활동, 내년에는 제대로 했으면...”



심진호 광주부윤공파선산종회장

경자년 한해, 광주부윤공파 선산종회(廣州府尹公派善山宗會) 종원님들과 청송심문의 모든 일가님들 잘 지내셨는지요?

올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선산종회도 정기총회는 물론이고, 선조묘소 참배행사와 묘사도 취소 또는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종회를 소개하자면 선산종회의 근거지는 경북 구미(선산)입니다. 광세(光世) 할아버지의 넷째 아드님으로서 정언, 장령, 광주부윤 등을 지내신 14세조 광주부윤공(松) 할아버지의 후손들이 모인 파종회입니다. 매년 시조부터 13세조까지의 묘소를 성묘하고 있으며, 장학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원 여러분, 그리고 일가 여러분, 2021년 신축년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파종회 회장들의 송년사

새해에도 심문은 손잡고 미래를 향해 달려갑니다



심대섭 지성주사공
총회장

“끝은 새로운 시작... 힘차게 새출발을”

청송심문 가족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살얼음판 위를 걸으며 하루를 일 년 같이, 일 년을 하루 같이 지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대종회 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조들의 저력을 이어받아 일가들께서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와 지혜를 발휘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청송심씨 일가 여러분, 지긋지긋했던 올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처럼 새해에는 모든 청송심문 가정이 건강하고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청송심씨 일가 여러분, 힘차게 새해를 맞이합시다. 그리고 청송심문의 발전을 위해 힘차게 함께 나아갑시다.

“청성백 정경부인 묘소, 교육의 장 되도록 노력”



심상호 청주총회장

청주총회는 2020년 대종회와 충북 종인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청송심씨 4세조 청성백 배위 정경부인 청주송씨 할머니, 도총제공 배위 동양군부인 신씨 할머니의 묘역을 청주시 향토유형유적 제162호로 지정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청주총회에서는 두 묘소가 소현왕후(세종대왕비)의 조모와 백모라는 사실을 청주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자라나는 학생들의 뿌리교육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일가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협조와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 신축년에도 청송심문이 크게 발전하고 청주총회도 성장해서 묘역의 품격을 높이고 춘추향 봉행과 문중의 돈독 결속을 다지는데 성심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송년 인사드립니다!”



심상욱 토론토총회장

고국에 계신 일가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웠던 한 해 잘 견디어 내셨길 바랍니다. 지난해 10월 5일 청송심씨 한마음대회의 그 뜨거웠던 감정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는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는군요.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욱 돈독해진 일가 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한해였기도 했습니다. 대종회에서 이곳 멀리 타국에 사는 저희를 위해 마스크를 보내 주셨을 때는 핏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한지 마스크를 보내 주신 삼례문화예술촌 가영·가희 원장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발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내년에는 꼭 일가 여러분을 뵙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에도 대종회의 무궁한 발전과 일가 여러분 대내에 건강과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청송 심문은 어려움 이겨낼 저력 있어”



심희섭 춘천총회장

올해는 1월 코로나 전염병부터 시작해서 봄철 냉해, 여름철 지나긴 장마로 인한 수해, 가을철 태풍까지 쉴 새 없는 재난재해로 심신이 피로하고 지쳤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진감래(苦盡甘來)라고 했습니다. 청송 심문은 능히 이겨낼 저력이 있으며, 지난 800년의 역사에서 보여 주었던 삼한 갑족, 명문 가문의 가르침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올 한해 정말 어려웠지요? 고생하셨습니다. 힘내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다가오는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는 일가 가족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청송 심씨 일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화하는 대종회, 지방총회에도 활력 안겨줘”



심훈 대구총회장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유난히 고단하고 힘든 한 해였지만, 이런 고난 속에서도 자랑스러운 우리 심문 후손 형제자매들께서는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굳건하게 이겨내고 더욱 발전하였습니다.

새해에는 심문달력을 제작한다니 참으로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국, 아니 전 세계의 일가께서 성원해 주시고 앞다투어 주문하시는 모습을 보며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항상 노력하고 발전하는 대종회 모습을 보면서 지방총회는 많은 것을 배우며 또한 많은 힘을 얻습니다. 얼마 안 남은 올해, 그늘진 곳의 어려운 이웃 일가들과 손잡고 함께 고난과 역경을 이겨냅시다! 나아가 2021년 신축년에도 더욱 힘차게 단합하고 결속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심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50여 명이 모여 활동 중...언제든지 가입 환영”



심노진 용인총회장

다사다난했던 경자년도 하루하루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은 모두 성취하셨는지요?

올해는 코로나로 경제도 건강도 모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를 퇴치해서 경제와 생활이 모두 정상궤도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용인총회는 지역총회로서 희망하시는 분은 즉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50여 명이 분기별로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우리 용인총회에 가입을 원하는 일가분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경자년, 하시는 일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신축년에도 일가 여러분의 고당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효문화와 제례문화는 천년만년 이어졌으면...”



심재운 광주송암총회장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사다난'이라는 말을 쓰는데, 올해야말로 역대급 다사다난의 해였던 것 같다. 코로나도 그랬고, 정치도 그랬다.

올해는 풍수해와 산사태 등 자연재난도 심했다. 나 역시 집안 선산이 일부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선산을 보수하면서 옛 봉분을 평장에 가깝게 작고 아담한 봉분으로 바꾸면서 느낀 것이 많다.

최근 우리의 장묘문화는 화장이 대세이고, 봉분 대신 평장이나 수목장, 납골묘 등으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위대한 정신문화인 효(孝)문화와 조상을 섬기는 제례문화만큼은 큰 변화 없이 천년만년 계승되기를 기대해본다. 그것이 곧 인간성 회복이며, 애족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종회탐방 : 곡산공종회를 찾아서

김포의 자랑스러운 심우신 의병장 가문...선양사업에 나서다!



심재갑
곡산공종회 회장

1. 곡산공은 누구인가

곡산공(谷山公 · 10세손 휘 沈鑣)은 안효공(휘 沈濶)의 5대손으로서 곡산군수(谷山郡守)를 지냈고 호조판서(戶曹判書) 겸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를 증직 받았다. 곡산공 할아버지 장남 문의공(휘 友聖)은 문의(文義)현감을, 차남 훈도공(휘 友賢)은 서부학당훈도(西部學堂訓導)를, 3남 첨정공(휘 友信)은 무과급제 후 선전관에 임명돼 임진왜란 때 표의장수(彪義將帥)를 지냈으며, 4남 사어공(휘 友寬), 5남 도사공(휘 友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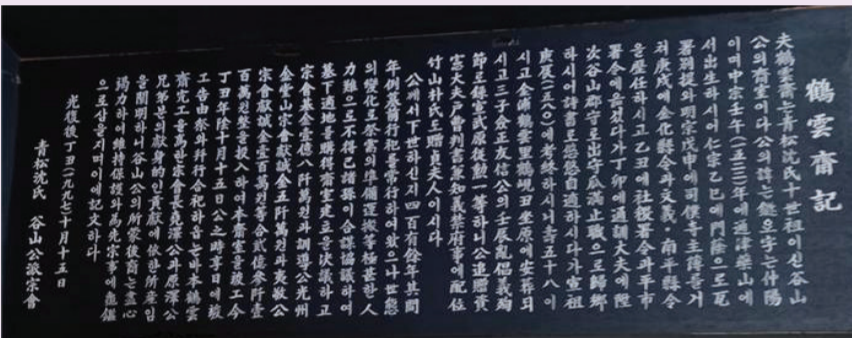
2. 임진왜란 의병장 심우신 장군

임진왜란 의병장 선무공(휘 友信)은 11세손으로 조선 중종 때 지금의 김포시 대곶면 대능3리에서 태어났다. 1577년(선조10) 24세에 식년무과에 급제해 선전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황해도 웅진현 현령 때 사표를 내고 통진으로 귀향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통진의 가산을 정리하고 처가에 내려가 처가의 재산까지 합쳐 수천 명의 의병을 모아 왜군에 맞서 황간, 청주, 수원 등지에서 큰 전공을 세웠다. 특히 진주성 전투에서 화살이 다할 때까지 왜군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김포의 자랑스러운 인물이다.

3. 곡산공종회의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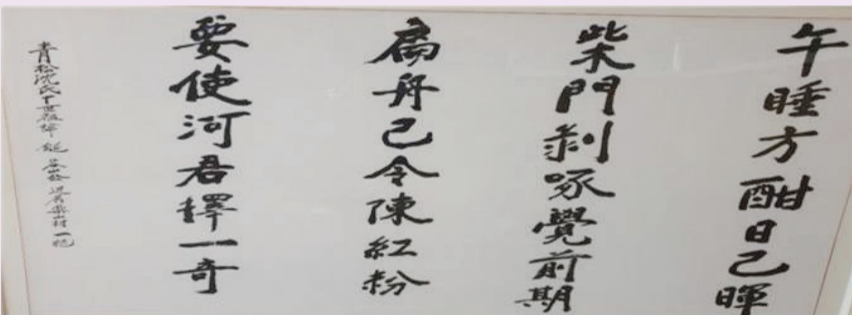
심재갑 회장을 비롯한 곡산공종회 집행부와 이사회가 결정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심우신 장군 선양사업을 최우선 당면과제로 선정하고, 이경공종회, 곡산공종회, 김포문화원 및 역사학 교수 등으로 심우신장군 선양사업회를 결성했다. 1차로 2020년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임진왜란 당시 선무공께서 의병장으로 활약하신 지역을 답사했다. 선무공의 위대한 공적을 기리고, 후대에 널리 알리기 위해 선무공 직계손 심창선 곡산종회 총무를 중심으로 전남 장성군 삼서면 유평리373에 위치한 사당인 표의사(구.장천사)를 지방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한 준비도 시작했다.



1997년 재실 학운재를 건립하면서

5형제를 뒀다. 문의공의 후손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학현에, 선무원종공신인 첨정공의 후손은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학당동에, 도사공의 후손은 대곶면 약암리와 대능리, 그리고 양촌읍 유현리, 학운리 등지에 정착하여 살고 있다.



곡산공 유작시. 낮잠을 달게 자고 나니 눈부신 대낮이구나 / 사립문 밖 인적소리에 전에 한 약속이 생각나네 / 조각배는 이미 붉은 단장 마치었다고 / 한 뱃사공이 소식을 전하여 주네.

곡산공 할아버지 후손들은 이처럼 자랑스러운 선조의 선비 정신을 이어받고, 지역사회로부터 받는 존경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5일 김포아트빌리지 아트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심우신 장군 학술 세미나 (김포시 주최, 김포문화원 주관)



임진왜란 의병장 심우신 장군 선양사업에 나선 일가들. 뒤에 보이는 동상이 심우신 장군이다.

둘째, 재정 확충을 위해 김포시가 요청한 '공용차고부지 임대사업'을 수용기로 했다. 2021년부터 경기도 김포시 소재 곡산공 재실 학운재(鶴雲齋) 인근의 임야 약 3000여 평을 공용차고 부지로 빌려주기로 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셋째, 곡산공 후손은 11세조 임진왜란 의병장 심우신 장군부터 26세손 육군소장 심진선 장군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인재들이 많다. 곡산공 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인재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 10월 5일 '청송심씨 한마음대회'를 마치고 남은 경비는 대중회가 설립한 재단법인 청심장학회에 기부했다.

넷째, 청송심씨의 뿌리정신인 효와 우애를 더욱더 돈독히 하고, 화합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심재갑 회장이 곡산공종회 운영구상을 대중회 이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일가기업탐방... 충북 진천 (주)협동

맨주먹으로 일군 건설자재 대표 기업 沈門 인재육성에 적극 참여할 것



(주)협동 본사 전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수평1길에 있다.

(주)협동은 심상경 회장이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일생을 바쳐 일구어낸 강소기업이다. 1995년 충북 진천군 덕산면에서 설립해 몇년전 이웃 이월면으로 이전했다. 이 회사(회장 심상경, 대표 류순하)는 아파트 같은 건물을 짓는데 꼭 필요한 거푸집과 비계 구조물, 안전시설물을 생산해 판매, 임대, 설치하는 업체이다. 이 분야에서는 잘 알려진 대표 기업이다.

이미 품질이 검증된 새로운 공법의 독자적인 가설 제품을 개발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가설업계 최초로 턴키방식(Turn-Key System)을 도입해 제조부터 시공까지 선진화한 일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 회사의 주요 거래처는 현대, 삼성, 풀림, GS건설 등 1군 건설사들이다.

(주)협동은 그동안 수백여 건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트러스 빔을 공급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성과를 내오던 중 마침내 철구조물의 제작 및 설치로 2016년 ISO9001(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해 시행하는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 인증을 받았고, 시스템비계생산라인(KCS 안전인증)도 구축했다.

(주)협동은 2003년 슬래브용 가설재 '트러스 빔'을 개발해 특허를 획득했다. 건설현장에 이 제품을 설치하면 슬래브 하부에 넓은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규격화 자재여서 슬래브의 품질 관리도 쉬워진다. 또 슬래브 수평 레벨의 정확성을 높이고 자재와 인건비 절감으로 작업공정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심상경 회장. 대중회가 설립한 재단법인 청심장학회의 이사로도 일하고 있다.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적극적인 투자만이 현실경제의 불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경영자의 신념과 노력으로 새로운 거푸집시스템, 슬래브용 드롭시스템을 선보이기도 했

다. 이 제품은 콘크리트가 붙지 않는 코팅 합판을 사용하고, 프레임 처리로 박리제를 바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

(주)협동은 30여 년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의 시스템비계 제조와 임대, 트러스빔 제조와 판매, 가설자재 임대(유로폼, 단관파이프, 각파이프, 철써포트, 안전발판, 브라켓 등), APT자재 m²당 턴키 임대 사업을 주종사업으로 육성 중이다.

심상경 회장은 '인본주의' 경영방침을 추구한다. 사훈이 '경건한 삶을 통하여 나의 일로 국가에 공헌한다'이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와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노사 간은 물론 거래처와 동종업계와도 항상 수평적 토대 위에서 사람 중심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심 회장은 인재육성을 위해서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우석대 진천캠퍼스 발전을 위해 대학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심 회장은 "우석대 진천캠퍼스는 충북 진천의 유일한 대학으로 지역발전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지역발전을 선도적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청송심씨대중회(회장 심대평)가 2019년에 설립한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이사로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심 회장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열심이다. 2010년부터 6년 간 진천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상임위원, 우석대 산학협력 중점교수도 역임했다. 현재 청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한국가설협회 충북지회장, 동탄~안성~국가대표선수촌~덕산 혁신도시~청주 공항을 잇는 충북철도유치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협동을 방문한 대중회 이사들. 왼쪽부터 심상익 문화이사, 심상경 회장, 심연태 총무이사, 심규정 재무이사

청송신문 사람들 - 이런 일 저런 일

수상, 서훈, 회장 취임... 끊이지 않는 심문의 낭보

심재경 완도군 우리음식연구회장 '대통령상'



2020 대한민국 국제요리 & 제과 경연대회에서 국회의장상 수상

심재경 전남 완도군 우리음식연구회장이 9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0 제21회 한국음식관광박람회 한국국제요리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팀)과 금상(개인)을 수상했다. 심 회장이 출품한 요리는 완도 특산물인 전복과 각종 해산물을 이용한 '해산물초구절판'이었다. 심 회장은 "2020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 경연대회에서 다시마 부각과 꼬끼리 마늘장아찌 등을 출품해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 대통령상과 금상까지 수상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완도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을 더 연구하고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서민금융진흥원 국장 국민훈장 석류장



심재철 서민금융진흥원 국장(앞줄 왼쪽에서 두번째)이 10월 29일 63컨벤션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제4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석류장(서민금융부문)을 수상했다.

제28대 파주시민회장에 심재득 씨



심재득 씨가 지난 9월 제28대 파주시민회장에 취임했다. 파주시민회는 1965년 5월 재경파주향우회로 출발했으나 50년 만인 2017년 9월 파주시민회로 이름을 바꿨고, 2020년 6월 사무실을 통째로 파주로 옮겼다. 이재창 전 경기도지사, 송달용 전 초대 파주시장 등 1천6백여 명이 가입해 있다. 심 회장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종로구 의원, 종로문화원장 등을 지냈다.

하반기 인사 발령



심재홍 (재)한국골재산업 연구원 초대 원장 (국토부 산하 비영리법인, 8월 27일)

- <울산 남구>(9월 24일자) ▲안전총괄과 심명화
- <전라북도>(9월 28일자) ▲도로관리사업소 심재근
- <경기 이천시>(10월 5일자) ◇ 4급 승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 <전북 정읍시>(10월 8일자) ▲심수미 감곡면(문화예술과)
- <강원도 고성군>(10월 13일자) ◇ 신규임용 ▲경제체육과 심상현
- <조선IS>(10월 14일자) ◇ 임원인사 ▲대표 심형권

- <대전 중구>(10월 15일자) ◇ 신규임용 ▲문화체육과 심영택
- <강원도>(10월 19일자) ◇ 6급이하 승진 ▲심승연
- <강원도 평창군>(11월 16일자) ▲심재호 안전교통과장 ▲심미경 가족복지과 ▲심연지 복지정책과

선조님 보살핌은 땅으로... 후손들 정성은 하늘로

시조문림랑공(휘 沈洪孚) 추향제...10월 25일 경북 청송



추향제는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참여 인원을 제한해서 봉행했다.

대중회, 심진선 사단장(육군 소장) 위문...9월 25일 전방



왼쪽부터 심상억 대외협력실장, 심익섭 오산사북시정공중회장, 심재득 파주종회장, 심대평 대중회장, 심재갑 곡산공중회장, 심창선 곡산공중회 총무, 심진선 사단장.

2세조 합문지후공(휘 沈淵) 10월 27일 전북 익산



2세조 봉익대부공(휘 沈晟) 11월 10일 강원 철원



3세조 청화부원군(휘 沈龍) 10월 29일 경기 안성



4세조 정안공(휘 沈德符) 10월 31일 경기 연천



일가들이 도와주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업을 경영하는 심문 일가들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종보는 일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일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광고를 모아 심습니다. 일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리산 벌꿀꽃감 전국택배

상호 : 산청시골농장
대표 : 박경제(심재순) 010-8544-1339
주소 : 경남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대로838

재첩국 전문점

상호 : 하동재첩국전문
대표 : 심은숙 010-2221-3863
위치 : 부산시 북구 구포시장

면역력에 자연발효 산홍삼

상호 : 한국홍삼제조공사
대표 : 심호웅 010-4021-0345
주소 : 대구시 달서구 앞산순환로 49길50(송현동)
인증 : 대한민국특허청 흑삼의 원조 관련 발명특허 4건 등 등록

안마의자 판매 및 렌탈, 전국영업

상호 : 오레스트 안마의자 전주점
대표 : 심점보 010-9769-2100 063) 251-1119, 2188
위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 안마의자와 천연라텍스 제품 (매트리스, 베개) 판매

안경

상호 : 안경매니저 광고점
대표 : 심우보 010-8705-6505 031) 265-2400
위치 : 용인시 수지구 광고중앙로 316. 104호105호

윤정 보이차

상호 : 윤정 보이차
대표 : 심윤정 010-9206-6507 (051) 417-1113
위치 : 부산시 영도구 남항로 48, 2층

건강보조식품 전국택배

상호 : 완주곰벙이 벙이농장
대표 : 심호섭(김민서) 010-7178-8866
위치 : 전북 완주군 용진읍 상삼간중길 87
※ 곰벙이환, 과립, 분말, 엑기스(NAVER에서 '완주 곰벙이벙이 농장'을 클릭 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경비-청소-소독 용역업(전국)

상호 : (주) 예천에스엠비
대표 : 심규숙 010-7756-4073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 201-1(본리동)
※ 경비업, 환경업(청소), 방역(소독)

방역게이트, 광고, 온라인 홍보마케팅

상호 : 카이 게이트
대표 : 심재철(심홍섭) 010-8707-2123
위치 : 서울특별시 (www.kaigate.co.kr)

동신참치 전문점

상호 : 동신참치 (참치회)
대표 : 심영미 055) 242-2519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

천막의 모든 것

상호 : 성실천막철공어닝
대표 : 심광열 010-2868-4147
위치 : 대구시 서구 국제보상로 33

중고차 판매

상호 : 태산중고차
대표 : 심홍보 010-9318-7152
위치 : 부산 남구 동명로 12. 22호

국제결혼, 국내결혼

상호 : 초이스결혼문화원
대표 : 심성엽 010-3356-7777, 063) 838-3377, 854-0808
위치 : 전북 익산시 중앙로 13길 37

법 무 사

상호 : 창조법무사사무소
대표 : 심민실 010-3789-1177 031) 769-5234
위치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6-3. 502호 (송정동, 명성빌딩)
※ 각종 등기, 비송 등 법무

서예 학원

상호 : 백석서당서예학원
대표 : 심옥이(, , 흰돌) 010-3819-1379
※ 국전초대작가, 심사. 성경서예작가. 아동문학가, 시 낭송가
위치 : 구미시 상사서로 18 신세계우방타운 104동 405호
※ 작품주문 제작. 비문 현판회호, 작품판매.

예절, 인성, CS강사

상호 : 웃자행복연구소
대표 : 심봉섭 010-8224-5113
위치 : 대구광역시 남구
※ 행복의 씨앗을 보았는가? (경찰학교 외래교수)

CCTV 설치

상호 : 체크솔루션
대표 : 심태현 010-5467-5620
위치 : 충청북도 청주

영광 찜 부세글비, 글비 전국택배

상호 : 맹구의 먹거리 학당
대표 : 심성은 010-7317-1972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청송 사과 전국택배

상호 : 청송 탕갓봉옴스과
대표 : 심영희 010-3088-5900
주소 : 경북 청송군 청송읍
인증 : GAP, 최고당도 17.1브릭스, 청송군 개인농가최초 저탄소인증 획득

전자제품 제조업

상호 : 영광일렉콤
대표 : 심만섭 010-5225-0785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주요생산품목 :
*DIGITAL DOOR-LOCK P.C.B생산 [MAIN P.C.B]
*삼성SDI 통신장비 P.C.B 생산 (POWER MAIN P.C.B)
*가정용 온도조절기 (하니웰)

편 의 점

상호 : 세븐일레븐전주서신아이파크점
대표 : 심향보 010-3654-0195, 063) 252-6999
위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릉로 121

유학 이민

상호 : 이루리 유학 이민(주)
대표 : 캐나다이민 법무사 심광택 010-3355-8815(한국), Promising Shim/ RCIC(533761) 647-482-3815(캐나다)
위치 : 서울 은평구
※ Eail: info@iruriuhak.com, 카톡: CANADA7979, Website:iruriuhak.com

컴퓨터 및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소매 컴퓨터,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컴퓨터 수리

상호 : 제이현IT스토어
대표 : 심재명 070-7607-3800 0507) 1476-3801
위치 : 인천 계양구 장기동

행사이벤트 불꽃놀이 레이저쇼 특수효과

상호 : (주) 파이로심
대표 : 심은용 010-3533-1809
위치 : 대구광역시

노인 장기요양 지정기관

상호 : 우정노인복지센터
대표 : 심남일 010-6687-0695 / 055-762-1353
위치 :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985번길 9
※ 요양보호사 모집. 요양보호사 파견 및 교육상담
blog.naver.com/skadla1278

무역업, 컨설팅업

상호 : (주) 아띠글로벌
대표 : 심윤보 010-8930-3889
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토목) 전문건설

상호 : (주) 청우산업개발, (주)청우탑건설
대표 : 심만섭 010-4000-276
위치 : 경북 경산시 강변서로 53길 15-5
※ 시설물, 금속구조물, 교량보수보강/정밀점검, 방수 내진/건축자재

공지사항

<2021년 沈門달력 배부 안내>

<2021년 청송沈門달력>은 주문에 의거 제작하여 연 1만원 이상 찬조하시는 일가분께 무료로 배부해 드립니다. 미수령 일가분께서는 대종회 02) 2267-7857, 2267-9339 또는 대종회소식 밴드 등 SNS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보 찬조금 · 임원회비 송금계좌 ☎ <농협 301-0107-5873-71 청송심씨대종회>

<인터넷족보 수단내용 열람안내>

지난 5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접수한 '인터넷족보 수단(신규 및 수정 등)' 내용은 아래와 같이 열람기간을 거쳐 최종 편성됨을 알려드립니다.

- 1. 열람기간 : '20.12.15 ~ 31.
2. 열람방법 : ①인터넷 접속 -> ②청송심씨대종회(또는 정보 www.csshim.or.kr) -> ③인터넷 족보바로가기클릭 -> ④본인과부(父) 이름기재 후 찾아보기 클릭 -> ⑤책보기 클릭 해당 페이지 접속 -> ⑥수단(수정·증보) 내용 확인
3. 결과조치 : 오류가 있는 경우만 대종회(T 02-2267-7857)에 정정 의뢰
4. 최종확정 : 2021. 1. 15까지 교정 작업을 마치고 최종 마무리할 예정

☎ 장학금 기부계좌 <농협 301-0256-8973-11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재) 청심장학회 장학생 선발 예고>

- ◆ 예정신청일 : 2021년 2월 15일~ 2월 26일
◆ 지원자격

- ◆ 고교1년생 : 중, 고등학교 성적우수자
◆ 대학(원)생 : 전체 학점 3.8/4.5점 이상 또는 관련 전공분야의 표창 등 실적우수자 (입학성적 우수자 포함)
◆ 특기생 및 일반인 : 국내.외 수상실적 우수자 또는 유망주
◆ 구비서류
1. 장학금 신청서 2. 추천서 3.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성적증명서(고1년생은 중학교도 제출) 4. 장래 목표 도전 계획서 5. 서약서 6. 학교재학증명서 7. 가족관계 증명서 8.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9. 기타 증빙서류(수상실적, 전문능력증명서 등)
* 신청서 양식은 청심장학회 홈페이지(www.cshim.org) 또는 청송심씨대종회 홈페이지(www.csshim.or.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지급예정일 : 2021년 4월 중
◆ 문의처 : (재) 청심장학회 사무국(02-2267-7857)

<안효공 기신제 간소봉행 안내>

2021.1.6(음 11.23) 안효공배위 순흥안씨 기신제와 2021.2.5(음 12.24) 안효공 기신제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하여 종원분들 참석없이 집행부에서만 정성껏 모시고자 하오니 종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0. 11. 30.
青松沈氏安孝公派宗會
會長 沈茂燮

각종 찬조현황(2020. 9. 18 ~ 2020. 11. 15)

■ 각 찬조 50만 원 이상 찬조 시 2회 사진게재

Table with 2 rows and 10 columns of donor portraits, names, titles, and donation amounts. Includes names like 심영철, 심경진, 심재열, 심상욱, 심정환, 심무섭, 심진섭, 심장식, 심재섭, 심덕섭, 심광부, 심춘식, 심국향, 심진섭, 심성식, 심춘식, 심상경, 심재근, 심익섭, 심양섭.

증보찬조

- 200만원 광부(서울)
100만원 오산시정공파종회(회장 익섭)
50만원 원섭(일산), 금당산종회(회장 윤섭)
30만원 진주이반성종회
20만원 흥식(서울), 동서울종회(회장 중섭), 좌승지공종회(회장 수영)
15만원 은섭(서울)
10만원 우권(부여), 우경(광주), 원석(천안), 철구(천안), 화진(강원)
5만원 재화(진주), 장섭(안동), 우관(동두천), 경보, 재인, 재장, 우식(의정부)
3만원 상익(원주), 영수
2만원 성엽, 응호
10만4,080원 지료증보찬조

장학금기부

- 300만원 장식(함흥공파 회장)
200만원 재섭(우리종회 회장), 국향(제주)
충식(주)선광, 상경(협동), 진섭(골든포우), 성식(하늘천)
100만원 덕섭(서울), 춘식(해정건설)
50만원 재근(전남)
10만원 극택(서울)
2만원 재희(일산)

2020년 추향 헌성금

- 시조(청송) 20만원 오산시정공파종회
20만원 울산내금위종회
3세조(안성) 30만원 청수회(회장 학섭)
20만원 오산시정공파종회
10만원 도총제공종회
4세조(연천) 30만원 인수부유평종회,
20만원 오산시정공파종회
4세조배위(청주) 20만원 도총제공종회

임원회비

- 부회장 30만원 총택(서울), 현근(대전), 무섭(수원)
이사 5만원 우식(경기), 상두(충남), 극택(서울), 성기(강원)